

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- ☐ 제 출 자 : 대구광역시장
- ☐ 제출일자 : 2023년 10월 26일
- ☐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7일

2. 제안이유

- ☐ 「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근거하여 운용 중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, 특별회계를 지속 운용코자 그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코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☐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
(안 조례 제5158호 부칙 제2조)

4. 검토의견

□ 개정 취지 및 적법성 여부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낙동강수계법”이라 한다.) 및 「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근거하여 설치·운용하고 있는 ‘수질개선특별회계’의 존속기한(23. 12. 31.까지) 만료에 따라,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, 그 내용과 체계는 관계 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.

□ 주요 검토사항

-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(안 조례 제5158호 부칙 제2조)
 - 안 조례 제5158호 부칙 제2조(존속기한)는 현행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것임.
 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적정한 개정으로 판단됨.

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~ ② (생략)

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 5. 28.>

- 수질개선특별회계는 「낙동강수계법」 제29조(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)에 따라 설치 여부가 재량사항이나, 조례에서 세입항목으로 목적세에 해당하는 '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의 징수액'을 정하고 있어 특별회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.

「낙동강수계법」

제29조(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)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·도 및 시·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 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「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3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
2. 「지방세법」 제142조에 따른 **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의 징수액**. 다만,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제외한다.

○ 사전 절차 이행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, 심의결과 '원안가결' 되었음.²⁾

2) '제4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(특별회계 조례 존속기한 연장) 결과 통보(예산담당관-7839, 2023. 7. 5.)

「지방재정법」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~ ③ (생략)
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('23. 12. 31. 까지)에 따라, 이를 '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.
-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입항목으로 목적세(지역자원시설세)를 포함하고 있어, 「지방재정법」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존치·운영할 타당성이 있으며, 개정 내용은 관계 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구성된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'23년 9월 현재 특별회계 조성 총액(17.6억원)의 절반 가량(8.3억원)이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어 있어 재원 활용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, 특별회계 운용 목적에 적합한 신규사업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.

□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